

‘그들만의 리그’... 못다핀 야구사랑 꽃 핀다

광주 직장 야구 동호인들



14개의 팀이 참여한 광주 사회인야구리그가 지난 8일 개막식을 갖고 9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벧살에 엉겨주춤 자세
볼 빠뜨리고 헛스윙해도
마음만은 프로처럼 당당**

**광주 400여명 활동
회원들 애정사 쟁기며
가족 같은 정 나눈다**



광주남부경찰서 야구 동호회(감독 오원철) 회원들이 우승을 향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고, 추운 겨울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습경기 해온 만큼 이번 시즌 확실하게 동계훈련의 성과를 보여주겠다며 각오가 대단하다.

야구에 대한 선수들의 열기만큼이나 가족들의 반응도 뜨겁다. 8일 있었던 개막식에는 동호회 회원들과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경기장을 가족들은 개막식 이후 펼쳐진 개막전 경기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그라운드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한 열띤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팀명과 자신의 이름과 배번이 새겨진 근사한 유니폼을 입고 고글, 스피커, 글러브까지 단단히 갖추고 운동장에 나서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프로 선수들처럼 당당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이를 속일 수 없는 벧살과 엉겨주춤한 타격자세 그리고 공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볼이 날림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직장인 리그에 참여하는 야구 동호회 400여명의 회원 평균 연령대는 40대가 훌쩍 넘는다. 50대의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리그 최고령으로 이름을 올린 기독교병원 팀의 김운식(53)씨는 노익장을 과시하며 1루의 철벽 수비를 담당하고 있다.

노장선수가 많기로 유명한 남부경찰서 ‘논스톱’ 팀은 20대의 신인 선수가 새로 가입하면서 잔치 분위기가. 27세의 김도연씨가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팀의 평균 연령을 낮추었다.

남부경찰서의 강승구(42·수사과)씨는 “20대의 젊은 선수가 새로 가입하면서 예전보다 더 팀에 활기가 넘친다”며 “야구를 통해 한 주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타기관 야구 동호회와 경기를 하면서 친목을 쌓아 업무협조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자신감과 야구에 대한 열정은 어느 프로 선수를 못지 않지만, 막상 경기장에 들어서면 외야로 날리는 멋진 타구보다 수비를 하며 클러브 뒤로 빠뜨리는 공의 개수가 더 많기도 하다. 공을 쫓다가 엉덩방아를 찧기도 하고, 1루수에게 공을 던지지는 것을 덕 아웃으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복절도하게 하는 엉뚱한 플레이가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날카로운 공격과 수비는 아니지만 풋풋한 아마추어의 모습이 직장인 야구 동호회만의 매력이다.

끈끈한 단합으로 가족 같은 정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야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얻는 장점이다. 어느 경기보다 선수 간 호흡이 중요한 운동이다 보니 함께 운동을 하면서 동료애가 절로 키워진다. 덕분에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매주 얼굴을 맞대며 쌓은 정으로 다른 팀 선수의 애경사도 챙기며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도 쌓을 수 있다. 게다가 매주 토요일 OB맥주, KT, 기아자동차 야구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부인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야유회를 나와 응원도 보내주는 등 가족 화목까지 좋아졌다. 운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있는 만큼 동호회 활동을 통해 1석3조의 효과를 얻고 있

다. 동구청 야구동호회 ‘매버릭스’의 회원 김민수(36·환경관리사업소)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며 “야구를 시작한 이후로 일주일 내내 토요일만 기다려 지는 등 생활에 활기가 넘치면서 일의 효율도 좋아졌다”며 동호회 예찬론을 폈다.

OB맥주 야구동호회 회원 김길현(40세)씨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부쩍 좋아졌다”며 “건강만큼 동료들과 함께 야구를 하면서 유대감도 높아지고, 회사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아마추어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동호회지만 직장인 리그 운영은 프로처럼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리그 회칙과 규정도 공식화되어 있고, 경기마다 심판이 배정되어 매끄러운 경기 진행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전에는 양팀 감독이 출전 선수의 명단이 적힌 오더를 교환하면서 승리를 위한 머리 싸움도 펼친다. 모든 경기는 기록으로 남아 리그 홈페이지에 올라오기 때문에 훈련량 다스림을 향해 자신감을 건 기록 경쟁도 뜨겁다. 주루 코치들도 배치되어 있어 경기 중 이들의 힘찬 제스처도 볼 수 있다.

야구에는 장비가 많이 드는 만큼 초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는 않다. 20명을 기준으로 한 팀을 창단하는 데 비용은 350~400만원 선이다. 유니폼과 팀 장비인 헬멧, 프로텍터와 같은 포수 장비, 공을 배트를 장만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외에도 리그 가입비와 함께 매 경기 심판비, 경기 중 사용하는 공인구(공)를 장만하는 데 드는 비용도 있다.

봄의 시작과 함께 그라운드에 나선 동호회 회원들은 오는 11월까지 우승을 향한 9개월의 여정을 계속하게 된다. 11월 플레이오프 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과 준우승을 가리게 된다.

회원들은 날씨가 꺾어도, 운동장 상태가 안 좋아도 동료와 함께 운동장에 나서서 공을 치고, 던지며, 달릴 수 있는 게 좋다. 고무공을 가지고 골목길을 누비던 것에 비하면 장비를 갖추고 정식으로 타석에 서고, 마운드에 오르는 게 행복하기만 하다.

그래도 회원들에게도 아쉬움은 있다. 물이 복잡하고 장비와 구장, 상대팀 등 경기를 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취미 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많다.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은 만큼 야구장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야구장 조성이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동호인들이 야구를 즐기는 것이다.

“야구만큼 ‘우리’가 중요한 운동도 없습니다. 하나 잘한다고 만족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집중하고 노력해야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즐거워 야구, 즐기는 야구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는 계속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겨보는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p>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p> <p>M관 10,000 BC (15세) 최고급관 2관 추격자-디지털 (18세) 3관 벤티지포인트 (15세)/27번의결혼리허설 (15세) 4관 바보 (12세) 5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6관 추격자 (18세)/마이뉴파트너 (15세) 7관 마이블루베리나이즈 (12세)/스텝업2 (15세) 8관 허밍 (12세) 9관 10,000 BC (15세)</p> <p>광주점 무료관객 행사 종료했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p>	<p>—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마이뉴파트너 (15세) 2관 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 3관 바보 (12세) 4관 벤티지포인트 (15세)/어툰먼트 (15세) 5관 추격자 (18세) 6관 주노 (12세)/람보4 (18세) 7관 10,000 BC (15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 국내-외의 주차장 300대 *</p> <p>•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p>	<p>광주시영예매 • 예매: www.joyco.com / 1588-7941 컬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p> <p>1관 허밍 (12세) 2관 마이블루베리나이즈 (12세)/벤티지포인트 (15세) 3관 바보 (12세)/추격자 (18세) 4관 추격자 (18세) 5관 연을 쫓는 아이 (12세) 6관 마이 뉴 파트너 (15세) 7관 10,000 BC (15세) 8관 27번의결혼리허설 (15세)/집결호 (12세) 9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10관 10,000 BC (12세)</p> <p>*호남 최대 주차장 *예매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상영권리료 별도 (1인외 2인~4인)</p>	<p>색깔있는 영화선별 • www.cinusa.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마이 블루베리 나이즈 (15세) 2관 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 3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 4관 허밍 (12세) 5관 마이 뉴 파트너 (15세)/ 바보 (12세) 6관 추격자 (18세) 7관 10,000 BC (15세)</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권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녹차 사무니(오렌지+캐비사)</p> <p>ARS 전화예매 1544-0070</p>	<p>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p> <p>1관 마이뉴파트너 (15세) 2관 벤티지 포인트 (15세) 3관 10,000 BC (15세) 4관 10,000 BC (15세) 5관 추격자 (18세) 6관 바보 (12세) 7관 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 8관 마이베리나이즈 (12세)/집결호 (12세) 9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p> <p>•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 • 명품스 케찹을 위한 전용휴구 마련 • 편의점이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p> <p>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p>	<p>세로문기점 • www.primuscinema.com/www.jello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10,000 BC (15세) 2관 허밍 (12세) 3관 바보 (12세)/마이블루베리나이즈 (12세) 4관 추격자 (18세) 5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5세) 6관 마이뉴파트너 (15세)/27번의결혼리허설 (15세)</p> <p>•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	---